

고려유적 출토 송대 남방 백자의 지역별 특징과 수용 양상*

김경인**

- I. 머리말
- II. 고려유적 출토 송대 남방 백자의 분포와 특징
- III. 고려시대 유입 송대 남방 백자의 시기별 변천양상과 의미
- I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 도자의 한반도 전래는 한국 도자사 연구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高麗時代(918~1392)에 접어들면서, 越州窯, 定窯 등 중국 각지에서 제작된 다양한 종류의 자기가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그 가운데 靑白瓷은 宋代(960~1279) 江西省 景德鎮을 중심으로 福建省과 廣東省을 포함한 중국 남방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제작된 품종으로, 고려에 가장 많이 유입된 중국 자기로 파악된다.¹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선행 연구들은 고려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청백자의 유입 현황과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청백자의 사용 계층과 시기별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高麗時代 流入 宋代 南方 白瓷 研究」(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2)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

1 金英美, 「韓國國立中央博物館藏高麗遺址出土中國瓷器」, 『文物』(2010. 4), pp. 77-95.

유입 양상의 차이를 밝혀낸 바 있다.² 지금까지의 연구는 경덕진에서 제작된 양질의 청백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세품과 고려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에는 경덕진 외에 贛州 七里鎮, 복건성, 광둥성 등 여러 지역에서 제작된 청백자가 포함되어 있다.³ 문제는 청백자가 유색을 기준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로 인해 연구자마다 분류 기준이 상이하며 그 결과 청백자의 구분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⁴

이러한 문제는 이미 1975년 일본 東京國立博物館이 주최한《日本出土の中國陶磁》전시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⁵ 최근 중국 학계 내부에서도 청백자와 백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청백자를 백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남방 백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⁶ 이상의 견해를 수용하여 본고에서는 개성 부근, 익산 미륵사지, 태안 마도 등지에서 출토된 조질의 복건성·광둥성 백자를 포함하여, 송대 남방 지역에서 생산된 청백자와 백자를 통칭하여 남방 백자라 일컫고자 한다.⁷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한반도에 유입된 송대 남방 백자의 지역별 출토 특징과 시기별 변화 양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송대 남방 백자는 총 884점으로 ① 출토 유적이거나 유적의 성격이 명확히 확인되는 유물 ② 1900년대부터 1930년대 사이에 오늘날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수된 유물 ③ 국내외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고려 유적 출토품으로 확인되는 유물이다.⁸ 연구 대상에 포함된 유물들을 중국 남방 지역의 여러 요장 출토품

2 임진아, 「高麗靑磁에 보이는 北宋·遼代磁器의 影響」(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이종민, 「高麗 中期輸入 中國白磁의 系統과 性格」, 『미술사연구』 25 (2011. 12), pp. 137-160; 김윤정, 「高麗時代 遺蹟 出土 宋代 靑白瓷의 현황과 특징」, 『아외고고학』 16 (2013. 3), pp. 91-119; 同著, 「고려시대 송대 청백자의 유입 현황과 그 의미」, 『백자: 경덕진에서 서울까지』(한성백제박물관, 2020), pp. 220-239.

3 宋東林, 「景德鎮窯五代宋元時期靑白釉瓷器研究」(北京: 北京大博士學位論文, 2014); 尹恩珠, 「宋金時期東亞出土的中國白瓷研究」(上海: 復旦大碩士學位論文, 2016).

4 宋東林, 앞의 논문, p. 3; 栗建安, 「中國의 白磁·靑磁·靑白磁의 分類概念」, 『13-14世紀의 琉球と 福建』(熊本: 熊本大學, 2009. 3), p. 14.

5 長谷部樂爾는 색조만으로 청백자와 백자를 구분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청백자와 백자는 하나의 연결 선상 위에 존재한다고 이해하였다. 특히 청백자는 문양과 시문 기법의 계통까지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백자라는 용어 대신 청백색, 회색, 황색 등 다양한 색조의 자기를 포괄적으로 백자라고 명명하였다. 森本朝子, 「日本の白磁, 靑磁, 靑白磁의 分類概念-貿易陶磁分類의 歷史を 顧みる」, 『13-14世紀의 琉球と 福建』(熊本: 熊本大學, 2009), p. 15; 東京國立博物館, 『日本出土の中國陶磁』(東京: 東京國立博物館, 1975).

6 李穎翀, 「南方白瓷與“靑白瓷”產品定名的再探討」, 『中原文物』 216期 (2020. 12), pp. 118-128.

7 태안 마도 출토 백자에 관한 선행 연구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태안 마도 출수 중국 도자기』(2013); 이명옥, 「泰安 馬島 II 지구 海底 出土 中國陶磁 研究」(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참고.

8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송대 남방 백자 884점은 2022년을 기준으로 파악한 수량으로, 기존의 국내외 발굴조사 보고서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기록을 토대로 분류하였다. 김경인, 앞의 논문, p. 71, 표 1. 최근 미륵사지에서 300여 점의 청백자 및 광둥성 주주요 백자가 조사 정리되었고 제주 신창리 유적에서도 다량의 청백자가 출토되어 전체 수량에는 차이

과 품질·시문 방식·양식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고려 유적에서 확인된 남방 백자는 강서성에서 제작된 자기가 약 70%, 복건성과 광동성 일대에서 제작된 자기가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⁹ 이 두 지역에서 제작된 남방 백자는 동시대 고려를 비롯하여 일본,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등지에도 폭넓게 수출되었다.¹⁰ 이들 백자는 기형과 문양을 서로 공유하는 양상을 보이며, 동일한 소비 유적에서 함께 출토되기도 한다. 또한, 교역 방식과 교역로 역시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 유입되는 송대 남방 백자의 지역별 출토 특징과 시기별 변화양상을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 유물을 송,遼(916~1125) 및 일본 유적 출토품과 비교해 고려시대 유입된 남방 백자의 편년, 제작지, 소비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고려·요·일본 지역에서의 남방 백자 유입 양상과 관련 문헌 기록을 종합하여 고려시대 송대 남방 백자의 유입 경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셋째, 강진 사당리에서 출토된 송대 강서성 백자편과 이를 모방한 고려청자의 사례를 통해 고려시대 남방 백자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고려유적 출토 송대 남방 백자의 분포와 특징

송대 남방 백자는 한반도 전역의 고려시대 유적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본고에서 분석한 총 884점의 남방 백자는 발, 접시, 잔 등 실용적인 기종 외에도 향로, 베개, 합 등 의례용 또는 특수 용도의 기종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품종으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이러한 유적과 출토 유물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가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인 유입 경향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립의산박물관, 『미륵사지 陶磁: 중국도자』(2023); 국립해양유물연구소, 『제주 신창리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II』(2024).

9 연구 대상에 대한 분석은 출토 유적지의 성격, 출토 상황, 시문 양식 및 형태적 특징, 그리고 중국 현지 발굴 보고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인 구분 기준에 따라 생산지를 추정하였다. 분류 과정에서 기형, 문양, 태토, 유약의 특성, 그리고 제작기술과 양식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강서성 경덕진 요장에서 제작된 고급 백자와 복건성·광동성 요장에서 제작된 비교적 조질 백자 간의 품질 및 제작 양식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남방 백자를 두 지역군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남방지역에서 생산된 백자는 각 쑥 간의 기술 및 양식 교류로 인해 유사한 문양과 형태를 공유하고 있어 정확한 제작지 관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작지가 비교적 명확한 자료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송대 남방 백자의 유입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0 중국 도자기를 화물로 실었던 각종 沈船에서 광주 서촌요, 조주요 자기 등과 함께 경덕진, 복건 일대의 자기가 함께 확인되곤 한다. 劉未, 「中國東南沿海及東南亞地區沈船所見宋元貿易陶器」, 『考古與文物』6期(2016. 12), pp. 65-75.

〈Table 1〉〈고려시대 유입 송대 남방 백자의 기종별 수량〉 The Quantity of White Wares from the Southern Region of the Song Dynasty Imported during the Koryŏ Period by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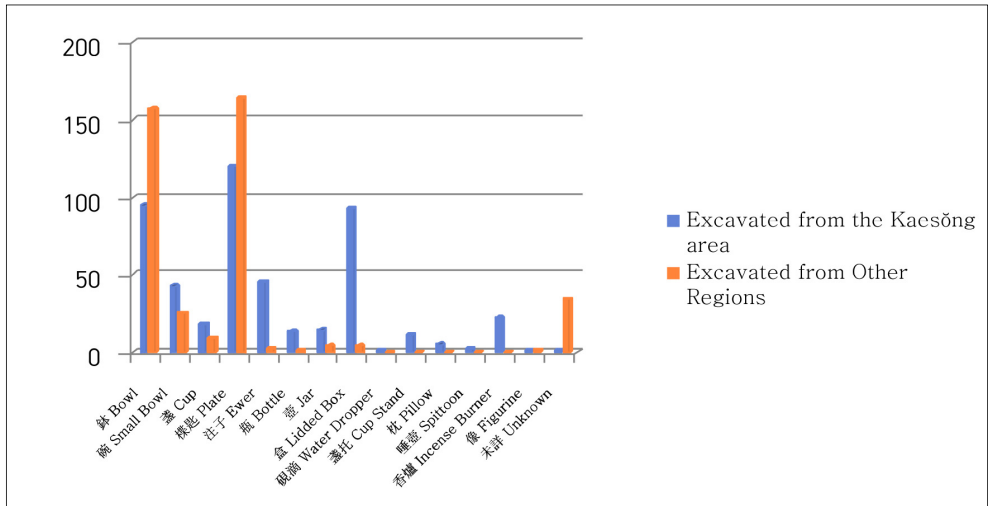
器種 Type	鉢 Bowl	碗 Small Bowl	盞 Cup	碟 Plate	注子 Ewer	瓶 Bottle	壺 Jar	盒 Lidded Box	視滴 Water Dropper	盞托 Cup Stand	枕 Pillow	唾壺 Spittoon	香爐 Incense Burner	像 Figurine	未詳 Unknown	合計 Sum
數量 Quantity (點)	252	67	27	284	47	14	18	97	1	11	5	2	22	2	35	884
比率 Proportion (%)	28.5	7.6	3.1	32.1	5.3	1.6	2.0	11.0	0.1	1.2	0.6	0.2	2.5	0.2	4.0	100

1. 개성 일대 내 고급 자기의 소비 집중

본고에서 말하는 개성 일대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인 황해도 해주와 강화도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역을 의미한다.¹¹ 개성 일대에서 확인된 남방 백자는 대부분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덕수 및 본관품이거나 해외 박물관 컬렉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¹² 박물관 소장품을 포함하여 개성 일대의 유적에서 출토된 송대 남방 백자는 총 483점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54.6%를 차지한다. 기종으로는 발, 완, 잔, 접시 등 실용적인 용도의 백자 외에도 주자, 합, 향로, 병, 호, 연적, 잔탁, 베개, 타호 등 다양한 품종이 확인된다. 특히 주자와 합은 각각 45점, 93점으로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강서성과 복건성, 광동성에서 제작된 다채로운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해, 개성 일대 이외 지역에서 출토되는 송대 남방 백자는 총 401점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이 발, 완, 접시류 등 실용적인 기종에 국한된다. 이처럼 개성 일대 내 남방 백자의 소비 양상이 기종적 측면에서 타 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Table 2).

11 그러한 배경에는 190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고려 고분이 발굴되는 과정에서 유물의 출토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개성 부근, 강화도, 해주 등 대략적인 지역명만 회고적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三宅長策, 『そのころの思ひ出 高麗古墳發掘時代』, 『陶磁』第6卷・第6號(東京:東洋陶磁研究所, 1934), pp. 70-77. 강화도와 해주는 개성과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 아니라 개성으로 들어가는 주요 경로 상에 위치한다. 따라서 당시 박물관에 입수된 유물 가운데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은 자기를 개성 일대 출토품으로 포괄하여 이해하는 것은 전체적인 유입 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김윤정, 앞의 논문(2013. 3), pp. 93-94; 同著, 「근대 미국의 고려청자 Collection 형성과 연구 성과의 의미」, 『석당논총』 66(2016), pp. 415-416.



〈Table 2〉〈개성 일대와 그 이외 지역에서 출토된 송대 남방 백자의 수량 비교(기종별)〉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White Wares Originating from the Song Dynasty Southern Region Excavated in the Kaesŏng Area and Other Regions (By Type)



Fig. 1. 〈白瓷陽刻牡丹唐草紋小形注子〉 *White Ware Small Ewer with Peony and Scroll Design in Relief*, Before 1159, Song, H. 6.1cm, Rim D. 2cm, Excavated from the Tomb of Mun Kongyu,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개성 일대 출토 송대 남방 백자는 기종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품질이 우수한 받, 합, 주자 등의 기종이 다량 확인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白瓷陽刻牡丹唐草紋小形注子〉는 1159년을 몰년으로 하는 文公裕(1088~1159)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물의 태토는 석고처럼 희고 불순물이 거의 없는 정선된 치밀질이며 유약은 저부의 일정 부분까지만

정교하게 시유되어 품질이 매우 뛰어나다(Fig. 1). 한편, 요대 1116년을 물년으로 하는 河北省 宣化區 張世卿(1042~1116)의 묘에서도 유사한 주자류가 확인되어, 이러한 유형이 12세기 전반까지는 고려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¹³ 이외에도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경덕진 호전요를 비롯하여, 落馬橋窯, 鳳凰山窯, 楊梅亭窯, 銀坑塢窯, 南豐 白舍窯 등에서 제작된 고품질의 남방 백자가 개성 일대로 유입되었다.¹⁴

강서성에서 제작된 백자뿐만 아니라 복건성과 광둥성에서 생산된 자기 역시 개성 일대 고위 계층의 분묘에서 출토되고 있다.¹⁵ 대표적인 예로는 고려시대 정2품 문신이자 기로회 창설에 기여한 인물로 알려진 崔讜(1135~1211)의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들 수 있다.¹⁶ 이곳에서는 묘지석과 함께 광둥성 潮州窯 자기로 추정되는 향로가 출토되었다(Fig. 2).¹⁷ 해당 유물은 현재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지만 유사한 예가 국립중앙박물관 덕수품 가운데에서 확인된다. 이 유물은 태토와 유약의 결합이 치밀하며, 양면과 복면으로 구성된 연판문이 정교하게 시문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Fig. 2. 〈白瓷七角蓮瓣紋香爐〉 White Ware Seven-lobed Incense Burner with Lotus Patterns, Before 1211, Song, Excavated from the Tomb of Ch'oe Tang, Current Location Unknown (Keijō bunmei shōkai, *Chōsen kōgei tenrankai zuroku*, p. 11)

¹³ 김윤정, 앞의 논문 (2013. 3), p. 102.

¹⁴ 宋東林, 앞의 논문, pp. 173-182.

¹⁵ 개성 일대 유적 가운데 분묘 이외에 고려궁성지, 강화궁성지 및 강화도 관청지 추정 유적에서 소량 확인된 바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2009); 同著,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I』 (2015); 중원문화재연구원, 『江華 玉林里 遺蹟』 (2012); 同著, 『강화 신봉리, 장정리 유적』 (2013);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인천시립박물관, 『江都, 고려왕릉展』 (2018), pp. 24-25.

¹⁶ 최당은 종2품의 참지정사로 지공거를 역임하고 정2품의 평장사까지 진급했다. 최당의 분묘에 매장되었던 다른 구성품은 확인되지 않고 분묘 위치 또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당의 저택이 왕경 내 운청리에 자리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묘지 역시 개성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은정, 『고려開京·京畿 연구』 (해안, 2018), pp. 79-81, 148; 박용운, 「고려시대 定安任氏·鐵原崔氏·孔巖許氏 家門 분석」, 『高麗社會와 門閥貴族家門』 (경인문화사, 2003), pp. 236-252.

¹⁷ 京城文明商會, 『朝鮮工藝展覽會圖錄(復刻版)』 第3卷 (東京: 東洋經濟日報社, 1984), pp. 9-11; 정규홍, 『우리 문화재 반출사』 (학연문화사, 2012), p. 450. 향로의 생산지에 대한 연구는 방병선, 「송대 광둥성 조주요의 무역도자 고찰」, 『강좌 미술사』 63 (2024. 12), pp. 344-346 참고.

개성 일대에서 출토된 이와 같은 송대 남방 백자가 당시 고급품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동시대 송·요대 귀족층 무덤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요대 장세경이 소속된 장씨 일족은 燕雲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서 토지 경영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장해 나간 가문이었다.¹⁸ 또 다른 예로 陝西省 藍田縣에는 『考古圖』를 집필한 呂大臨(1038~1093)과 그 일족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기와 함께 강서성에서 제작된 백자가 부장되었으며, 특히 주자와 잔탁은 국립중앙박물관 덕수품과 비교했을 때 크기와 세부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¹⁹ 이외에도 고려 왕릉이 다수 조성된 지역으로 알려진 곡령리 출토품이나, 고위 계층의 분묘가 밀집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용매도 출토 과형병의 사례를 들 수 있다.²⁰ 앞서 살펴본 문공유 역시 병부상서 등을 역임한 고위 관료층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이상의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개성 일대에서 확인된 송대 남방 백자는 송·요는 물론 고려 내에서도 지위가 높은 인물들에 의해 사용된 고급 자기로서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²¹

2. 사찰 중심의 소비 양상

개성 일대를 제외한 지방 유적 출토품을 통해서 송대 남방 백자의 소비처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방 일대에서는 송대 남방 백자가 분묘뿐만 아니라 寺址, 관청지, 해저, 島嶼, 가마터 등의 다양한 유형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Fig. 3). 이처럼 남방 백자의 소비처가 다양한 유적 유형에 걸쳐 분포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주 고달사지, 안성 봉업사지, 익산 미륵사지, 경주 불국사지 등에서 출토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찰은 당시 남방 백자의 중심적 소비처였음을 알 수 있다.²²

18 河北省文物管理處河北省博物館, 「河北宣化遼壁畫墓發掘簡報」, 『文物』 8期(1975. 8), pp. 31-37; 王善軍, 「由富求貴: 從歸化州張氏看遼金燕雲豪族的發展路徑」,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6期(保定: 河北大學, 2009. 12), pp. 1-8.

19 張蘊, 「陝西藍田北宋呂氏家族墓園考古發掘綜述與研究」, 『異世同調-陝西藍田呂氏家族墓地出土文物』(北京: 中華書局, 2013), pp. 11, 54-55. 金윤정, 앞의 논문, pp. 228-229.

20 용매도 출토 과형병은 仁宗(재위 1122~1146) 長陵 출토 〈靑瓷瓜形瓶〉과 비교 가능하다. 奧平武彦, 「朝鮮出土の支那陶磁器雜見」, 『陶磁』 第9卷·第2號(東京: 東洋陶磁研究所, 1938), pp. 1-7; 朝鮮工藝研究會, 『朝鮮工藝展覽會圖錄』(東京: 文明商店, 1941), 도 40.

21 金윤정, 앞의 논문(2020), pp. 233-236.

22 金윤정, 앞의 논문(2013. 3), pp. 9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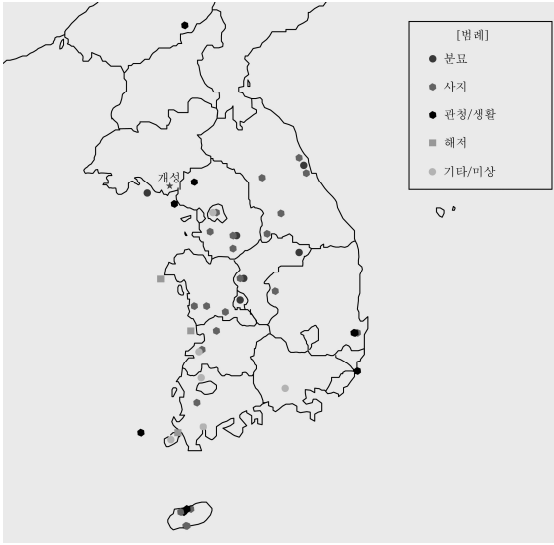


Fig. 3. <고려시대 송대 남방 백자 출토 유적 분포도> Distribution Map of Excavation Sites for White Ware from the Southern Region of the Song Dynasty during the Koryŏ Period (Illustrated by the author)

Fig. 4. <白瓷花形椀匙> White Ware Flower-shaped Dish, Song, H. 2.2cm, D. 10.9cm, Excavated from the Iksan Mirŭksaji Temple, Buyeo National Museum of Korea (Kungnip Iksan pangmulgwan, *Mirŭksaji toja: Chungguk toja*, p. 126)



Fig. 5. <白瓷陰刻童子紋鉢片> Shard of White Ware Bowl with Incised Child Motif, H. 4.5cm, Song, Excavated from the Iksan Mirŭksaji Temple, Iksan National Museum of Korea (Kungnip Iksan pangmulgwan, *Mirŭksaji toja: Chungguk toja*, p. 118)

Fig. 6. <白瓷陽刻魚紋椀匙> White Ware Dish with Fish Motif in Relief, Song, H. 1.7cm, D. 10.3cm, Excavated from the Iksan Mirŭksaji Temple, Iksan National Museum of Korea (Kungnip Iksan pangmulgwan, *Mirŭksaji toja: Chungguk toja*, p. 136)

사지에서 출토된 송대 남방 백자를 살펴보면 유적의 위치나 운영 시기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토 유물의 종류는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실제 출토된 유물의 유형을 보면, 강서성 백자 가운데 10-12판 화형접시, 童子紋이 시문된 발(이하 동자문 발), 그리고 기측선이 직립하는 평저형의 무문·음각·압출양각 접시(이하 평저형 접시) 등 비교적 한정된 종류의 기종이 주로 확인된다(Figs. 4~6).²³ 특히 동자문 발과 평저형 접시는 중국 광둥성 연안에서 발견된 南海 I 호 침몰선, 四川省 窖藏 유적, 일본 하카타 유적, 나아가 이집트 푸스타트 유적에서도 확인되는 유물로 12세기 후반부터 14세기까지 송상이 운반한 대표적인 무역품이었다.²⁴ 이와 같은 12세기 후반 이후의 무역자기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확산되었으며, 이는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²⁵

고려시대 사지에서 송대 남방 백자가 출토되는 배경으로는 당시 사찰과 중국 송상 간의 밀접한 관계가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고려의 사찰은 일찍부터 차와 함께 중국 자기를 수입해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직접 중국에 건너가 大藏經을 구해오는 등 중국의 물품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다.²⁶ 이와 관련하여 大覺國師 義天(1055~1101)의 사례는 송상과 사찰 간의 유통 관계에서 송상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의천이 송나라로 유학을 떠날 당시 탑승한 배는 송상의 배였으며, 송상을 통해 『紺紙金泥華嚴經』 170권과 금 2,000냥이 중국에 전달되었다. 이후에도 泉尙·海客·行商·都綱 등 다양한 송상들이 송나라의 고승 淨源과 의천 간의 서신을 중개하기도 했다.²⁷ 경우에 따라서는 송상 徐戩이라는 인물에게 華嚴經 등 특정 물품의 주문을 요청한 사례도 확인된다. 이외에도 의천과 송 승려 간의 교류는 당시 기록에 모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빈번했으며, 이러한 교류의 상당수가 송상이라는 상인을 매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천의 서신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송상의 존재는 승려들과 긴밀히 왕래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한 전문 상단이 있었음

23 김윤경, 앞의 논문 (2013. 3), pp. 100-110. 기타 유형의 자기도 확인되지만 앞서 세 종류의 자기에 비해 수량이나 출토 유적의 분포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편, 복건성·광둥성 자기도 일정한 구성의 유통품목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흑산도, 강화 신봉리·장정리, 태안 마도 등에서 출토된 복건성 백자가 개성 일대는 물론 파주 혜음원지, 대전 가오동 토광묘 등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익산 미륵사지, 안성 봉업사지에서는 같은 광둥성 조주요에서 제작된 백자발이 출토되기도 했다.

24 國家文物局水下文化遺產保護中心 외 編著, 『南海 I 號沉船考古報告之一 1989-2004年調查』(北京: 文物出版社, 2017); 同著, 『南海 I 號沉船考古報告之二 2014-2015年發掘』(北京: 文物出版社, 2018); 中國國家博物館·遼寧市博物館·彭州市博物館, 『宋韻-四川窖藏文物輯粹』(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25 김윤경, 앞의 논문 (2020), p. 226, 도 10.

26 이병희, 「高麗末 朝鮮初 白羊寺의 重創과 經濟問題」, 『한국사연구회』 제99·100호 (한국사연구, 1997), pp. 195-223.

27 이진환, 『高麗時代 宋商往來 研究』(경인문화사, 2011), pp. 70-74.

을 시사한다.²⁸

金(1115~1234)이 들어서면서 고려가 금과의 외교 관계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려·송 간 국교가 단절되었던 시기에도 고려 사찰과 송상 간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眞靜國師(1206~?)의 『湖山錄』에는 상인을 통해 향신료나 讚詠을 주고 받은 기록이 나타나며, 또 다른 사례로는 송나라 祖播禪僧이 고려의 승려 景照에게 송상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기록이 전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승려와 송상 간의 밀접한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²⁹

송상과 사찰 간의 활발한 교류는 비단 고려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요대 河北省 淨覺寺 탑에서는 송대 강서성 백자가 다량 출토되었다.³⁰ 일본 각지의 經塚 유적에서도 송대 남방 백자 출토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白山神社, 西野田, 鞍馬寺 등의 경총이 있다.³¹ 九州 일대에서는 일본에서만 출토되는 經筒이 확인되는데 이는 복건성에 주문 제작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Fig. 7).³²

또한, 시기는 다르지만 元代(1271~1368) 寧波(明州)에서 출발하여 수만 점의 자기를 운반한 신안선의 최종 목적지 역시 일본의 東福寺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고려



Fig. 7. 〈白瓷經筒〉 White Ware Sutra Container; Song, H. 34.4 cm, Excavated from the Sutra Mound at Shiojiyama, Umi-machi, Fukuoka-ken (Tōkyō kokuritsu hakubutsukan, *Nihon shutsudo no Chūgoku tōji*, p. 15)

28 의천의 『대각국사문집』 속에는 서전 외에도 李元穉, 洪保, 徐成 등의 이름이 확인되며, 의천이 송에서 귀국한 후 이들을 통해 송의 物資를 입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정용범, 「고려시대 사찰의 상업활동」, 『역사와 세계』 30 (효원사학회, 2006), pp. 543-544 사료 자 1-3, 차 1-3, p. 545 각주 38 참고. 이진한, 앞의 책, pp. 70-74.

29 허홍식, 『眞靜國師와 湖山錄』 (민족사, 1995), pp. 213-214; 『東文選』 卷67, 「空空上人免角庵記」;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卷3, 「次韻宋朝播禪老寄空空上人 并序」. 문헌에 등장하는 송상 歐陽伯虎의 신분은 이진한, 앞의 책, pp. 174-176 참고.

30 河北省文物管理處, 「河北易縣淨覺寺舍利塔地宮清理記」, 『文物』 9期 (北京: 文物出版社, 1986), pp. 76-80.

31 奈良國立博物館, 『(經塚出土陶磁展)畿内に埋納されたやきもの』 (1995); 京都國立博物館, 『(京都國立博物館藏)經塚遺寶』 (京都: 京都國立博物館, 1986); 常樂寺美術館, 『經塚出土の名寶』 (長野: 常樂寺美術館, 1982); 奈良國立博物館, 『(新館落成記念)經塚遺寶展』 (1973).

32 長谷部樂爾·今井敦, 『中國の陶磁-日本出土の中國陶磁』 (東京: 平凡社, 1995), pp. 108-109.

시대 사지에서 송대 남방 백자가 빈번하게 출토되는 현상은 단순한 유물의 존재를 넘어 당시 송상과 사찰 간에 형성된 긴밀한 교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로 평가할 수 있다.³³

3. 내륙과 도서의 출토 양상 차이

앞서 개성 일대와 지방 일대의 주요 사지를 중심으로 내륙에서 출토되는 남방 백자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와 달리 제주도과 흑산도 같은 島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내륙 출토품과는 상이한 특징을 보이므로 별도로 그 양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³⁴

제주도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해상 항로 상에 위치하여 해난지이자 해상포



Fig. 8. 〈白瓷陰刻雲紋梅瓶片〉 Shard of White Ware Maebyōng with Incised Cloud Motif, Song, H. 5.5cm, Excavated from Konae-ri, Cheju, Jeju National Museum of Korea (Jeju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식으로 인식되어 왔다.³⁵ 이러한 지리적 특성 속에서 제주도에서 출토된 송대 남방 백자는 수량은 많지 않지만 고려 내륙의 출토품보다는 일본 유적 출토품과의 유사성이 더욱 두드러진다.³⁶ 대표적인 예로 제주 고내리 유적에서는 강서성 경덕진에서 제작된 매병의 저부편이 1점 출토되었는데, 이는 1249년 강서성 安義縣에서 출토된 편년 유물과 조형적으로 유사하여 제작 시기를 13세기 중엽으로 추정할 수 있다(Fig. 8).³⁷ 특히 이 매병은 일본 유적에서는 자주 출토되지만 고려시대 유적에서는 현재까지 고내리 유적에서만 확인된 유

33 일레로 미륵사지 유적의 경우 최근 조사연구 과정에서 639점의 중국 자기를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경덕진요로 분류한 것만 298점에 해당하며 대부분 12세기 후반 이후의 무역 자기이다. 권소현, 「미륵사지 출토 중국 도자의 현황과 특징」, 『미륵사지 중국도자(2024 국립익산박물관 학술대회)』 (국립익산박물관, 2024), p. 41.

34 유입 경로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송동림, 「한반도 근해 출수 송원도자(宋元陶瓷)의 양상과 최종 수요처」, 『문물연구』 29 (2016), pp. 45-66 참고.

35 榎本 涉, 이지현 역, 「宋日・元日 間 海上航路와 高麗 島嶼地域」, 『해양문화재』 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pp. 74-96.

36 제주도 신창리 등에서는 송대 남방 백자 외에도 고려시대 유적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았던 합, 항로, 소호 등 소량의 경덕진 자기와 함께 다량의 용천요 자기가 출토되었다. 국립해양유물연구소, 앞의 책 (2024).

37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2013); 江西省博物館, 『江西宋代紀年墓與紀年青白瓷』(北京: 文物出版社, 2016), pp. 216-221.

일한 사례로, 그 기형상 일본과의 관련성이 더욱 높다고 평가된다.³⁸ 이러한 유물의 출토 배경으로는 제주도가 송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무역 항로 상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제주도에 출토된 중국 자기의 수량과 기종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송상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규모 교류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서남해안에 위치한 흑산도는 1074년을 기점으로 송에서 개경으로 향하는 주요 항로 상의 필수 관문으로 기능하였다.³⁹ 이곳에서는 관사지로 추정되는 유적에서 복건성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남방 백자 9점이 발견되었다. 출토품은 모두 발과 접시의 저부편으로 내면에는 비문이나 초문이 음각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굽바닥에 ‘筍’자로 보이는 목서가 확인되기도 했다.⁴⁰

마지막으로 도서 지역 출토 송대 자기를 논함에 있어南路 해상 교역로 상에 위치한 태안 마도 일대의 해저 유적 출토품을 빼놓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태안 마도 해저 유적에서는 100여 점이 넘는 송대 남방 백자가 출토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복건성에서 제작된 조질의 발과 접시이다. 이외에도 강서성 경덕진, 광동성 조주요에서 제작된 백자도 소량 포함되어 있다.⁴¹ 특히 주목되는 것은 태안 마도에서 출토된 복건성 백자 가운데 일부가 기형과 굽바닥의 ‘綱’자문 목서명에서 일본 유적 출토품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태안 마도 해저에서 출토된 자기가 일본을 최종 수요처로 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⁴²

그러나 흑산도와 태안 마도에서 출토된 복건성 자기들은 개성 일대나 지방의 사지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Figs. 9~11). 또한, ‘綱’자문 백자의 경우 『高麗史』에도綱首, 渡綱 등의 인물이 등장하는 바, 이러한 인적·물적 교류의 존재를 고려할 때 ‘강’자명 백자가 고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⁴³ 따라서 향후 발굴 자료의 축적과 분석이 이루어

38 일본 내 매병은 鎌倉時代(1185~1333) 정권이 소개했던 가마쿠라를 중심으로 특히 출토량이 많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매병은 지배계층이었던 무사들이 애호했던 기종으로 瀬戸焼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徳留大輔, 「日本に出土・傳世する 靑白瓷梅瓶に關する一考察」, 『出光美術館研究紀要』 214號(東京: 出光美術館, 2018. 1), pp. 17-53. 중국산 백자뿐만 아니라 가마쿠라 일대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역시 대부분 매병인 것을 통해 당시의 지배계층이었던 무사들이 매병을 애호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長谷部樂爾·今井敦, 앞의 책, pp. 114-115. 이외에도 제주도 유적에서 출토된 구연부 끝이 평평한 6판의 화형접시나, 높이가 낮고 동체가 넓은 小壺, 篋劃紋 발이나 접시는 일본 유적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다.

39 강봉룡, 「고대 한-중항로와 흑산도」, 『동아시아고대학』 20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p. 16.

40 전남문화재연구원, 『新安 黑山島 館舍址 II』(2016), pp. 184-186.

41 田中克子, 「한국의 태안 마도해역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기로 본 동아시아해역」, 『태안 마도 출수 중국 도자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2013), pp. 230-234 표 1 참고.

42 田中克子, 앞의 논문, pp. 249-150; 송동림, 앞의 논문, pp. 60-61.

43 ‘綱’자문 목서명 자기와 송상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명옥, 앞의 논문, pp. 76-109 참고.



Fig. 9. 〈白瓷鉢〉 *White Ware Bowl*, Song, H. 6.1cm, D. 15.6cm, Excavated from the Vicinity of Kaesŏng, National Museum of Korea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10. 〈白瓷鉢〉 *White Ware Bowl*, Song, H. 6.1-6.5cm, D. 17.2-17.5cm, Excavated from Mado, T'a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Kungnip haeyang yusan yŏn'guoso, *T'aean Mado ch'ulsu Chung'guk tojagi*, p. 42)

Fig. 11. 〈白瓷鉢〉 *White Ware Bowl*, Song, D. 17.1cm, Excavated from Hirohara, Miyazaki-shi (Tōkyō kokuritsu hakubutsukan, *Nihon shutsudo no Chūgoku tōji*, p. 53)

진다면, 해당 유물의 유통 경로는 물론 태안 마도 출수품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논의 또한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III. 고려시대 유입 송대 남방 백자의 시기별 변천양상과 의미

II 장에서는 고려에 유입된 송대 남방 백자의 출토 상황을 통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본 장에서는 10세기 후반부터 송나라가 멸망하는 13세기 말까지의 기간 동안, 남방 백자의 고려 유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기별 변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송대 남방 백자의 출토 양상과 시대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2세기 중엽을 기준으로 유입 시기를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분기점이 되는 시기는 1159년을 하한으로 하는 문공유묘 출토품이다. 비록 문공유묘 출토 백자는 전세품으로 추정되나 해당 유물이 보여주는 기종과 제작지의 특징은 송대 남방 백자의 유입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한 지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

1. 1기(10세기 후반~12세기 전반): 개성 일대 중심 고급 남방 백자 유입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 고려는 요나라의 반복된 침입으로 인해 요와의 조공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⁴⁴ 이로 인해 북송과의 교역은 단절되거나 제한적이었으나, 10세기 후반경부터 남방 백자가 이미 고려에 유입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개성 일대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白瓷注碗>을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유물은 편년이 가능한 남방 백자 중 가장 이른 사례로 경덕진 호전요에서 제작된 유사한 자기가 확인된 바 있고, 요대 姜承義(942~994) 기년묘 출토품과도 형태적으로 유사하여 제작지 및 유입 시기 추정의 근거가 된다.⁴⁵ 그러나 송·요대의 기년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고려 출토 송대 남방 백자의 유입 시기를 검토해 보면, 본격적인 유입은 11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배경에는 11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고려와 북송 간의 제한적 외교·교역 관계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국가 간 교역의 재개와 송상의 활발한 왕래를 통해 송대 남방 백자는 고려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기에 유입된 송대 남방 백자의 특징으로는 무엇보다도 개성 일대와 그 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간에 품질과 수량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려시대 당시 개성 일대에 거주한 인물들과 지방에 거주한 인물들 간에는 뚜렷한 신분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별 출토품의 차이는 곧 소비 계층의 위계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개성 일대에 산재한 고려 고분에서는 다양한 기종과 유형의 남방 백자가 출토되고 있다. 특히 강서성 백자 중 일부는 태토가 종이처럼 얇고 투명한 유약이 정교하게 시유된 매우 우수한 품질의 자기로 확인된다. 또한, 북건성 및 광동성 자기 가운데에서도 강서성 백자와 기형 및 문양을 공유하는 자기가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백자를 소비한 계층은 요·북송대 출토 사례나 개성 곡령리와 문공유 묘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왕족 및 고위 관료 등 고려 상층 계층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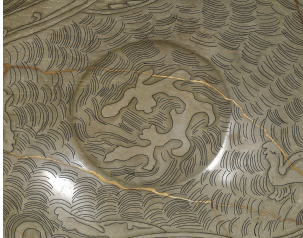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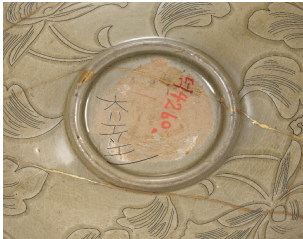

다종다양한 남방 백자가 소비된 개성 일대의 상황과는 달리 지방 일대에서는 실용적인 자기가 확인되며 종류 또한 극히 제한적이다. 지방의 분묘 유적에서는 주로 발과 접시가 출토되며,

44 구산우, 「고려 현종대의 대거란전쟁과 그 정치·외교적 성격」, 『역사와 경계』 74 (2010), pp. 91-92.

45 張家口市文管所宣化縣文管所, 「河北宣化遼姜承義墓」, 『北方文物』 4期 (1991, 12), pp. 67-71; 김윤정, 앞의 논문 (2013), pp. 97-98.

이들 백자는 대부분 복건성 및 광둥성 일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⁴⁶ 여러 점의 남방 백자가 출토된 익산 미륵사지와 같은 유적의 경우 복건성과 광둥성에서 제작한 발과 접시와 함께, 강서성에서 제작한 10-12관의 화형접시가 확인되고 있다. 남방 백자가 출토되는 사지, 관청지 등의 유적은 대체로 서해안과 인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 역시 이 시기의 특징이다.

〈Table 3〉 〈강진 사당리 출토 송대 남방 백자와 고려청자 문양 비교〉 A Comparison of the Patterns on White Wares from the Southern Region of the Song Dynasty Excavated from Sadang-ri, Kangjin and Patterns on Koryŏ Celadon

	White Ware from Jingdezhen, Jiangxi Province	Koryŏ Celadon
内面 Interior		
外面 Exterior		
側面 Side		
	〈白瓷陰刻螭龍紋鉢片〉 <i>Shard of White Ware Bowl with Chilong Design</i> , Song, Excavated from the Kaguyŏk site in Sadang-ri, Kangjin, Goryeo Celadon Museum (Photograph by Goryeo Celadon Museum)	〈青磁陰刻牡丹唐草紋花形鉢〉 <i>Celadon Bowl with Incised Peony Design</i> , Koryŏ, Excavated from the Vicinity of Kaesŏng, H. 8.5cm, W. 22.6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⁴⁶ 중앙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 가오동유적』 (2003), p. 125; 同著, 『청주 울랑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청주 울랑동 유적 II』 (2011),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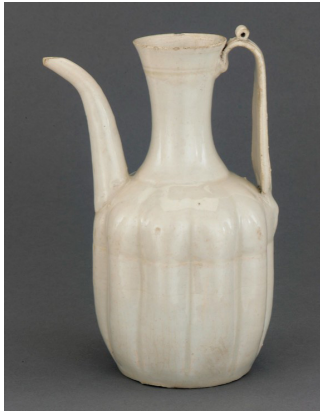


Fig. 12. 〈白瓷瓜形注子〉 *White Ware Gourd-shaped Ewer*, Song, H. 22cm, D. 12.1cm, Allen Collection of Freer Gallery of Art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https://asia.si.edu>)

Fig. 13. 〈白瓷瓜形注子〉 *White Ware Gourd-shaped Ewer*, Song, H. 25.4cm, Rim D. 8cm, Base D. 9.9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14. 〈青磁陰刻牡丹蓮花紋注子〉 *Celadon Ewer with Incised Peony and Lotus Design*, Koryŏ, H. 25.3cm, Rim D. 7.9cm, Base D. 7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한편, 12세기 전반에 경덕진에서 제작된 백자의 저부편이 강진 사당리에서 출토되어 주목된다(Table 3).⁴⁷ 이 이룡문이 시문된 백자 편은 강진 사당리 가구역에서 수습된 후 고려청자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원형은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에 1점이 전해져 그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경덕진 백자와 동일한 문양 구성과 형태를 가진 고려청자가 개성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굽 바닥의 명문까지 동일한 고려청자 파편이 강진 사당리에서 출토되어 해당 청자가 경덕진 백자를 충실히 모방하여 강진에서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⁸ 그동안 고려자기가 중국 자기를 어떻게 모방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⁴⁹ 사당리 출토 경덕진 백자와 이를 근거로 제작된 고려청자의 사례를 통해 당시 중국 자기를 모방한 방식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 유적에서 반복적으로 출토되는

47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룡문 자기는 왕실 의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12세기 전반에 한정적으로 제작되었다. 그 시기는 경덕진에서 이룡문 자기가 등장하는 시기와도 같다. 김윤정, 「12세기 고려청자 螭龍紋의 圖像의 특징과 연원」, 『미술사학』 35 (2018. 2), pp. 7-38.

48 座右寶刊行會 編, 『世界陶磁全集 18 高麗』(東京: 小學館, 1978), p. 205, 도 233, 234.

49 이희관, 「고려 예종과 북송 휘종-12세기 초기의 고려청자와 여요 및 북송관요」, 『해양문화재』 vol. 8 (2015), pp. 155-233; 정신욱, 「11세기 말-12세기 전반 高麗靑瓷에 보이는 中國陶瓷의 영향」, 『미술사학』 21 (2007. 8).



Fig. 15. <송대 남방 백자의 고려, 요, 일본 유입 경로>
Import Routes of the Song Dynasty into Koryŏ, Liao, and Japan (Ishikawa Kenritsu Rekishi Hakubutsukan, *Hatō o Koete*, p. 26; Edited by the author)

주자나 향로, 베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급 백자는 조공무역과 더불어 수행되었던 사행무역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시 고려와 송 사이의 국교가 단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외교 상황을 감안할 때 송대 남방 백자 유입은 대부분 송상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송상은 산둥반도를 거치는北路와 명주에서 출발하는南路를 모두 활용해 고려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Fig. 15).⁵¹ 이와 같은 유입 경로는 고려 유적 출토품 가운데 강서성 백자가 요대 유적과, 복건성 및 광둥성 백자가 일본 유적과 각각 유사성을 보이는 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남방 백자과형병, 과형주자, 화형접시 등 역시 고려청자로 제작된 예가 확인되어, 송대 남방 백자 가운데에서도 경덕진 백자가 고려자기 제작에 미친 영향력을 알 수 있다(Figs. 12~14).

다음으로 1기에 해당하는 송대 남방 백자의 유입 방식과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송대 남방 백자 가운데에서는 유독 고품질의 자기가 다수 확인되며 이는 송의 賜與品으로 고려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⁵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진 사당리에서 출토된 경덕진 백자를 비롯해 고품질의

50 송太祖(재위 960~976)가 三佛齊(현 말레이반도 일대)에서 사신이 왔을 때 백자가 당시 하사품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강서성 경덕진에서 생산된 자기들은 정요자기 만큼 호평을 받았으며 황실에도 공납되기도 했다. 『宋史』列傳卷 248, 外國 5, “建隆三年(962)春, 室利烏耶又遣使李麗林, 副使李鴉末, 判官吒吒壁等來貢。回, 賜以白縷牛尾, 白瓷器, 銀器, 錦線鞍轡二副……”; 『宋會要輯稿』, 「食貨」, “瓷器庫在建隆坊, 掌受明·越·饒州·定州·青州白瓷器及漆器以給用。以京朝官三班內侍二人監庫。”

51 명주는 11세기 후반부터 일본으로 향하는 출발점이면서도 고려로 가는 시작점이기도 했다. 『宋史』卷 487, 「列傳」第 246 「外國」 3, “往時高麗人往反皆自登州, 七年(1074), 遣其臣金良鑿來言, 欲遠契丹, 乞改塗由明州詣闕, 從之.”; 『蘇東坡全集』卷 58, “元豐三年八月二十三日中書札子節文: 「諸非廣州市船司, 輒發過南蕃綱船, 非明州市船司, 而發過日本·高麗者, 以違制論……」” 북로와 남로에 대한 내용은 문경호, 「송·원대 고려의 해상무역로와 청자교역」,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특별전 연계 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한국미술헌학회, 2025), pp. 35-38 참조.

우선 앞서 살펴본 요대 장세경 묘 출토 사례를 포함하여 요나라의 분묘 및 사지 유적 총 46곳 중 약 21곳에서 고려 출토품과 유사한 송대 남방 백자가 확인된다. 이들 유물은 대부분 기벽이 얇고 유약이 투명하여 품질이 우수한 강서성 백자이다.⁵² 고려와 요의 유적 모두에서 강서성 백자가 공통적으로 출토된 현상에 대해 강서성 백자가 산동반도로 먼저 유입된 후 이를 매개로 요와 고려 양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가 선행된 바 있다.⁵³ 이러한 배경에서 북로를 통해 남방 백자가 교역된 경로는, 당시 송과 요의 정치적 대립 구도를 고려할 때 송상에 의한 밀무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⁴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안 마도와 개성 일대에서 출토된 복건성과 광동성 백자는 일본 하카타 유적에서 출토된 자기와 비교 가능한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 일본 유적에서는 강서성 자기의 출토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이 복건성 및 광동성에서 제작된 조질의 자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으로 운송된 이러한 남방 백자는 송상에 의한 무역품이었음이 확인되며, 그 근거로는 崇寧 4년(1105) 泉州 출신 송상이 명주에서 완과 접시를 운반한 사실이 기록된 공문서인 公憑이 전해지고 있다.⁵⁵

정리하면 1기에 송대 남방 백자가 고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는 산동반도를 경유하는 북로와 명주를 출발하는 남로라는 두 가지 항로가 모두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입 경로는 출항지가 중복되는 요·일본 출토품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요 지역으로도 항할 수 있었던 북로를 통해서도 강서성에서 제작된 고급 백자, 특히 태토가 정선

52 김경인, 앞의 논문, pp. 48-19, 표 9, 10 참고.

53 산동반도에서 고려와 요 모두와 공통되는 강서성 백자가 확인되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대운하 山東段의 지세가 험하고 水源 문제와 황하 토사가 막혀 운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남쪽에서 출발한 도자기는 바닷길을 따라 산동반도로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에 따르면 강서성 경덕진 자기의 경우 昌江→鄱陽湖→長江→楚州→海州(현 강소성 연운항)→密州→등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黃義軍, 『宋代青白瓷의歷史地理研究』(北京: 文物出版社, 2010), pp. 149-150, 200-201; 陳傑, 「從南方瓷器出土看宋元時期山東水路交通」, 『山東社會科學』 第5期(2004. 5), pp. 97-102.

54 북로는 명주가 공식 항구가 되었던 11세기 후반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되었다. 당시 송상이 불법을 감수하면서도 북선항로를 이용한 이유는 바로 요나라에서 얻는 수익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다. 송상은 산동반도를 거쳐 요로 밀항을 시도했으며, 이때 송상은 고려로 간다고 하면서 요를 가거나, 고려에서 출발해 요를 들렀다가 송으로 다시 입국하면서 교역하였다. 黃義軍, 앞의 책, pp. 195-203; 陳傑, 앞의 논문, pp. 97-102.

55 『朝野群載』 卷 20 提舉兩浙路市舶司公憑, “……據泉州客人李充狀, 今將自己船壹隻, 請集水手, 欲往日本國, 轉買廻貨經赴明州市舶務抽解, 乞出給公驗前去者, 物貨(중략)瓷垸貳佰床, 瓷壘壹佰床(중략) 施行, 崇寧4年(1105)6月日給” 이 기록은 당시 도자기 무역량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森克己는 1상자당 1점의 그릇이 안치되었다고 생각하나 龜井明德는 17세기 伊萬裏 자기의 수출 사례 등을 통해 적어도 20개 정도의 자기가 한 조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층이 운반한 완은 4천 점, 접시는 2천 점에 달한다. 龜井明德, 「兩浙路市舶使公憑의陶磁」, 『九州歷史資料館 研究論集』 2 (小郡: 九州歷史資料館, 1976), pp. 98-103 참고.

되고 유약이 투명한 고품질 백자가 주로 유입되었다. 반면, 일본으로도 갈 수 있던 남로를 따라서는 복건성과 광둥성에서 제작된 조질 백자가 중심을 이루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고려에는 다양한 제작지와 품질의 송대 남방 백자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려 유적에서는 강서성에서 제작된 우수한 품질의 백자가 높은 비중으로 출토된다. 이는 곧 고려 상류 사회 내 고급 백자에 대한 선호와 수요가 매우 높았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강진 사당리에서 출토된 경덕진 백자편과 이를 모방한 고려청자의 사례는 강서성 백자가 단순한 수입품을 넘어, 고려자기 제작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음을 보여준다. 즉, 고려 사회는 송대 남방 백자 가운데에서도 특히 강서성 백자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모방까지 하였으며, 이는 강서성 백자에 대한 선호가 있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2. 2기(12세기 후반~13세기 후반): 남방 백자 소비의 지역적 확대

1기에서 개성 일대와 그 외 지역 간에 뚜렷한 출토 양상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과 달리, 12세기 후반 이후에는 지역별 출토 백자의 차이가 줄어들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에는 백자의 출토 범위가 자강도 등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확산되는 한편, 지역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유적에서 동일한 구성의 백자, 즉 강서성 경덕진 일대에서 제작된 동자문 발과 평저형 접시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백자는 앞서 언급한 남해 I 호선과 같은 교역선에서 대량 확인되는 이른바 무역자기로 분류되는 유형이다. 이때 유입되는 백자는 강서성 경덕진에서 제작된 것이지만, 기벽의 두께나 시유 상태 등 품질 면에서 이전보다 저하된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13세기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파주 혜음원지와 강화 중성 유적에서 출토된 동자문 발은 기벽이 두꺼워지고 굽 바닥에 불순물이 부착된 상태로 유입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남원 실상사지, 원주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발 역시 기벽이 두껍고, 태토에 불순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문양의 시문도 성글고 조잡해졌으며 과거의 투명한 유약 대신 불투명하고 짙은 유색의 유약이 사용된 경우도 확인된다.

고려로 유입된 이러한 무역자기는 당시 활동하던 行商과 船商에 의해 육로 및 河運을 통해 각지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통 경로는 희천시 서문동 교장 유적, 파주 혜음원지 등 당시 주요 교통로에 위치한 역이나 원 관련 유적에서 무역자기가 출토된 사례를 통해 뒷받침된다.⁵⁶ 또한, 한강 이남 내륙 수운과 연계된 여주, 원주 일대의 사지 유적에서 남방 백자가 출토되는 양상 역시, 이 시기 내륙 수로망을 활용한 유통 경로를 짐작케 한다.

한편, 고려와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12세기 중엽 이후부터 강서성과 복건성에서 제작된 자기류가 기종의 다양성과 수량 면에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경덕진과 복건성에서 제작된 盒과 小壺는 일본의 경총 유적이거나 고분 유적 등지에서 함께 출토되며 그 분포 지역이 넓고 출토량도 상당하다.⁵⁷ 특히 강서성 산 매병의 경우, 일본에서는 다수의 출토 사례가 있는 반면 고려에서는 제주 고내리 유적에서 확인된 1점이 유일한 실정이며, 강서성 주자나 복건성 경통 또한 현재까지 고려 유적에서는 출토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3세기에 접어들며 집권 계층과 송상의 관계가 긴밀해졌고, 이 과정에서 송상에게 필요한 물품의 구매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교역 구조가 전환되었다.⁵⁸ 이러한 구조 하에서, 당시 자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던 일본은 남방 백자나 용천요 청자와 같은 고급 도자를 수입하여 수요를 충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려는 청자 제작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⁵⁹ 이에 따라 외래 자기 수입에 대한 필요성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는 곧 남방 백자의 유입 양상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주목할 점은, 1기와 2기 모두 고려 내에서 청자 제작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방 백자가 고려자기에 미친 영향력의 양상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1기에는 경덕진 백자를 중심으로 고려 청자에 뚜렷한 영향이 관찰되지만, 2기에는 남방 백자의 유입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자기에 대한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는 12세기 이후 고려에서 상감기법의 정착과 함께 독자적인 미감과 기술이 발달한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자기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대 남방 백자의 고려 유입은 ① 출토지역과 기종 ② 요 및 일본 출토품과 비교 ③ 유입 항로 ④ 고려자기와의 영향 관계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56 원은 불교시설 중 하나이지만 行旅들의 편의를 제공한 곳이다. 院館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교통로 상에 위치하여 인적·물류를 관장하는 장소로써 운영되었다. 이병희, 『高麗時期 寺院經濟 研究』(경인문화사, 2009), pp. 455-493; 정은정, 앞의 책, pp. 172-197.

57 菅沢そわか, 「経塚に埋納された青白磁小壺について—中國紀念墓出土品との比較による變遷と埋納背景の検討—」, 『東洋陶磁』第51號(2022 3), pp. 5-33.

58 11세기 후반부터 송상들은 일본의 하카타에 거류지를 두고 무역했으며 13세기에 이르면 송상과 일본의 지배층 및 사찰과 귀족 관계를 맺게 되었다. 13세기 이전까지 무역의 주도권이 하카타 강수가 가져오던 수입품을 구매하던 방식에서, 13세기 이후부터는 지배층이나 사찰이 하카타 강수에게 자본을 위탁하는 무역 대행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본다. 고은미, 「12세기의 여일교류(麗日交流)와 송상(宋商)」, 『史林』 49 (2014), p. 324.

59 고려는 청자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시의 대표적인 무역 상품이었던 용천요 청자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배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德留大輔, 「高麗의 中國 陶瓷 受容」, 『2022년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회고려시대 한중 항로와 해양사적 의미』(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p. 153.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Table 4).

〈Table 4〉 〈고려시대 유입 송대 남방 백자의 시기별 특징〉 Chr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White Wares from the Southern Region of the Song Dynasty Excavated in Koryŏ

Period	Excavation Areas / Ware Types	Comparative Contexts	Maritime Routes	Influence on Koryŏ Ceramics
First Phase (Late 10th-Early 12th Century)	Mainly Kaesŏng area; diverse types of Southern White Wares imported	Jiangxi wares resembling those found in Liao tombs; Fujian and Guangdong wares similar to wares excavated from Japan (e.g., Hakata sites)	Jiangxi wares entered Koryŏ and Liao via northern routes through the Shandong Peninsula; Fujian and Guangdong wares entered Japan and Koryŏ via southern routes from Mingzhou	Direct influence on Koryŏ celadon production, evident from dragon-patterned White Ware fragments found in Sadang-ri, Kangjin
Second Phase (Late 12th-Late 13th Century)	Expansion of practical trade wares (bowls and dishes) to regions like Huicheon Sŏmun-dong and Kyŏngsang Province; significant decline in quality of Jingdezhen ware compared to earlier periods	Diverse southern wares (e.g., maebŏng and sutra containers) widely imported into Japan; limited variety imported into Koryŏ	Southern maritime route from Mingzhou became predominant	Reduced influence of Song Dynasty Southern White Wares due to independent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Koryŏ ceramics

IV.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 유적에서 출토되었거나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전세된 송대 남방 백자 총 884점을 대상으로, 10세기 후반부터 13세기까지 한반도에 유입된 송대 남방 백자의 지역별 · 시기별 특징과 소비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송대 남방 백자의 특징과 소비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로 소비 · 분포 양상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고품질의 강서성 백자는 개성 일대의 상류 계층에 의해 집중 소비되었으며, 지방에서는 사찰을 중심으로 제한된 기종과 구성을 가진 자기가 유통되었다. 한편, 기존에 일본을 최종 수요처로 간주되었던 태안 마도 해저 유적 출토품 일부가 출토 사례의 비교를 통해 고려 내 소비와도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둘째, 시기별로 남방 백자의 유입 경로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고려로의 유입 경로는 동시

대요·일본 유적에서 출토된 백자와의 비교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1기에는 강서성의 고급 백자가 요와, 복건성·광둥성의 조질 백자가 일본과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점을 근거로 유입 경로가 북로와 남로로 이원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기에 일본과 향로를 여전히 공유하고 있으나 출토 양상은 달라지며, 그 배경에는 고려와 일본의 자기 제작 환경 및 유입 방식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셋째, 남방 백자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 역시 시기별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남방 백자 모방 양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기에는 반복적으로 출토되는 강서성 백자를 모방하여 고려자가 제작되었고, 복건성·광둥성 백자 가운데에서도 기형과 문양이 강서성 백자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특히 강진 사당리에서 출토된 강서성 백자를 그대로 모방한 고려청자의 제작 사례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강서성 경덕진 백자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며, 중국 남방의 다양한 요장에서 제작된 백자가 고려에 유입된 상황 속에서도 강서성 백자를 선택하여 소비하였던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2기에 들면 고려에서는 발, 접시류의 한정된 자기류만 유입되며, 모방 경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고려청자 제작에 있어 독자적인 상감기법이 발달하고 고유한 미감이 정착함에 따라 남방 백자에 대한 인식이 변모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 주제어(keywords)_高麗(Koryŏ), 宋代(Song Dynasty, *Songdai*), 南方白瓷(White Wares from the Southern Regions, *Nanfang baici*), 靑白瓷(Bluish White porcelain, *qingbaici*), 明州(*Mingzhou*), 山東半島(Sandong Peninsula), 사당리(Sadang-ri), 景德鎮(*Jingdezhen*), 潮州窯(*Chaozhuyao*)

■ 투고일 2025년 2월 10일 | 심사개시일 2025년 3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5년 6월 4일 ■

참고문헌

1. 사료

『東文選』
蘇軾, 『蘇東坡全集』
『宋史』
『宋會要輯稿』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朝野群載』

2. 한국어 문헌

榎本 涉, 이지현 역, 「宋日·元日 間 海上航路와 高麗 島嶼地域」, 『해양문화재』 9, 2016.
강봉룡, 「고대 한-중항로와 흑산도」, 『동아시아고대학』 20집, 2009.
고은미, 「12세기의 여일교류(麗日交流)와 송상(宋商)」, 『史林』 49, 2014.
구산우, 「고려 현종대의 대거란전쟁과 그 정치·외교적 성격」, 『역사와 경계』 74, 2010.
국립익산박물관, 『미륵사지 陶磁: 중국도자』, 2023.
김경인, 「高麗時代 流入 宋代 南方 白瓷 研究」,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2.
김윤정, 「慈江道 熙川市 西門洞 窖藏 출토 유물의 성격과 편년」, 『陶磁文化』 제2집, 2009.
_____, 「高麗時代 遺蹟 出土 宋代 靑白瓷의 현황과 특징」, 『야외고고학』 16, 2013. 3.
_____, 「근대 미국의 고려청자 Collection 형성과 연구 성과의 의미」, 『석당논총』 66, 2016.
_____, 「12세기 고려청자 螭龍紋의 圖像의 특징과 연원」, 『미술사학』 35, 2018. 2.
_____, 「고려시대 송대 청백자의 유입 현황과 그 의미」, 『백자: 경덕진에서 서울까지』, 한성백제박물관, 2020.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인천시립박물관, 『강도江都, 고려왕릉 展』, 2018.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2009.
_____,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I』, 2015.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20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태안 마도 출수 중국 도자기』, 2013.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제주 신창리 해역 수증발굴조사 보고서 II』, 2024.
권소현, 「미륵사지 출토 중국 도자의 현황과 특징」, 『미륵사지 중국도자, 2024 국립익산박물관 학술대회』, 국립익산박물관, 2024.
德留大輔, 「高麗의 中國 陶瓷 受容」, 『2022년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고려시대 한중 항로와 해양사적 의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문경호, 「송·원대 고려의 해상무역로와 청자교역」,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특별전 연계 학술심

- 포지업』, 국립중앙박물관·한국미술사학회, 2025.
- 방병선, 「송대 광동성 조주요의 무역도자 고찰」, 『강좌미술사』 63, 2024. 12.
- 박용운, 「고려시대 定安任氏·鐵原崔氏·孔巖許氏 家門 분석」, 『高麗社會와 門閥貴族家門』, 경인문화사, 2003.
- 송동립, 「한반도 근해 출수 송원도자(宋元陶瓷)의 양상과 최종 수요처」, 『문물연구』 29, 2016.
- 이병희, 「高麗末 朝鮮初 白羊寺의 重創과 經濟問題」, 『한국사연구회』 제99·100호, 1997.
- _____, 『高麗時期 寺院經濟 研究』, 경인문화사, 2009.
- 이종민, 「高麗 中期 輸入 中國白磁의 系統과 性格」, 『미술사연구』 25, 2011. 12.
- 이명옥, 「泰安 馬島 II 지구 海底 出土 中國陶磁 研究」,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이희관, 「고려 예종과 복송 휘종-12세기 초기의 고려청자와 여요 및 복송관요」, 『해양문화재』 vol. 8, 2015.
- 이진한, 『高麗時代 宋商往來 研究』, 경인문화사, 2011.
- 栗建安, 「한국 태안 마도 수중에서 인양된 복건 도자 및 관련 문제」, 『태안 마도 출수 중국 도자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2013.
- 임진아, 「高麗靑磁에 보이는 北宋·遼代磁器의 影響」,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전남문화재연구원, 『新安 黑山島 館舍址 II』, 2016.
- 정규홍, 『우리 문화재 반출사』, 학연문화사, 2012.
- 정신옥, 「11세기 말-12세기 전반 高麗靑瓷에 보이는 中國陶瓷의 영향」, 『미술사학』 21, 2007. 8.
- 정용범, 「고려시대 사찰의 상업활동」, 『역사와 세계』 30, 2006.
- 정은정, 『고려 開京·京畿 연구』, 해안, 2018.
- 田中克子, 「한국의 태안 마도해역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기로 본 동아시아해역」, 『태안 마도 출수 중국 도자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2013.
- 중앙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 가오동유적』, 2003.
- _____, 『청주 울랑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청주 울랑동 유적 II』, 2011.
- 중원문화재연구원, 『江華 玉林里 遺蹟』, 2012.
- _____, 『강화 신봉리, 장정리 유적』, 2013.
- 허흥식, 『眞靜國師와 湖山錄』, 민족사, 1995.
- 홍금수, 「고려시대 흥원창과 법천·거둔·홍법 원주 3대 강변사찰」, 『대한지리학회지』 vol. 54·no. 6, 2019.

3. 동양어 문헌

- 江西省博物館, 『江西宋代紀年墓與紀年青白瓷』, 北京: 文物出版社, 2016.
- 京城文明商會, 『朝鮮工藝展覽會圖錄(復刻版)』 第3卷, 東京: 東洋經濟日報社, 1984.
- 菅沢そわか, 「経塚に埋納された青白磁小壺について—中國紀念墓出土品との比較による變遷と埋納背景の検討—」, 『東洋陶磁』 第51號, 2022. 3.
- 龜井明德, 「兩浙路市舶使公憑の陶磁」, 『九州歴史資料館 研究論集』 2, 小郡: 九州歴史資料館, 1976. 1.
- 國家文物局水下文化遺產保護中心 외 編著, 『南海 I 號沉船考古報告之一 1989-2004年調查』, 北京: 文物出

版社, 2017.

_____, 『南海1號沉船考古報告之二 2014-2015年發掘』, 北京: 文物出版社, 2018.

金英美, 「韓國國立中央博物館藏高麗遺址出土中國瓷器」, 『文物』4期, 2010. 4.

奈良國立博物館, 『(新館落成記念)經塚遺寶展』, 1973.

_____, 『(經塚出土陶磁展)畿内に埋納されたやきもの』, 1995.

徳留大輔, 「日本に出土・傳世する青白瓷梅瓶に關する一考察」, 『出光美術館研究紀要』214號, 2018. 1.

東京國立博物館, 『日本出土の中國陶磁』, 東京: 東京國立博物館, 1975.

京都國立博物館, 『(京都國立博物館藏)經塚遺寶』, 京都: 京都國立博物館, 1986.

森本朝子, 「日本の白磁, 青磁, 青白磁の分類概念-貿易陶磁分類の歴史を顧みる」, 『13~14世紀の琉球と福建』, 熊本: 熊本大學, 2009.

三宅長策, 「そのころの思ひ出 高麗古墳發掘時代」, 『陶磁』第6卷・第6號, 1934.

常樂寺美術館, 『經塚出土の名寶』, 長野: 常樂寺美術館, 1982.

宋東林, 「景德鎮窯五代宋元時期青白釉瓷器研究」, 北京: 北京大博士學位論文, 2014.

栗建安, 「中國の白磁・青磁・青白磁の分類概念」, 『13~14世紀の琉球と福建』, 熊本: 熊本大學, 2009. 3.

奥平武彦, 「朝鮮出土の支那陶磁器雜見」, 『陶磁』第9卷・第2號, 1938.

王善軍, 「由富求貴:從歸化州張氏看遼金燕雲豪族的發展路徑」,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6期, 2009. 12.

劉未, 「中國東南沿海及東南亞地區沉船所見宋元貿易陶瓷」, 『考古與文物』6期, 2016. 12.

尹恩珠, 「宋金時期東亞出土的中國白瓷研究」, 上海: 復旦大碩士學位論文, 2016.

李穎翀, 「南方白瓷與“青白瓷”產品定名的再探討」, 『中原文物』216期, 2020. 12.

長谷部樂爾・今井敦, 『中國の陶磁-日本出土の中國陶磁』, 東京: 平凡社, 1995.

張家口市文管所宣化縣文管所, 「河北宣化遼姜承義墓」, 『北方文物』4期, 1991. 12.

張蘊, 「陝西藍田北宋呂氏家族墓園考古發掘綜述與研究」, 『異世同調-陝西藍田呂氏家族墓地出土文物』, 北京: 中華書局, 2013.

朝鮮工藝研究會, 『朝鮮工藝展覽會圖錄』, 東京: 文明商店, 1941.

座右寶刊行會 編, 『世界陶磁全集 18 高麗』, 東京: 小學館, 1978.

中國國家博物館・遂寧市博物館・彭州市博物館, 『宋韻-四川窖藏文物輯粹』,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陳傑, 「從南方瓷器出土看宋元時期山東水路交通」, 『山東社會科學』第5期, 2004. 5.

河北省文物管理處, 「河北宣化遼壁畫墓發掘簡報」, 『文物』8期, 1975. 8.

_____, 「河北易縣淨覺寺舍利塔地宮清理記」, 『文物』9期, 1986. 9.

黃義軍, 『宋代青白瓷的歷史地理研究』, 北京: 文物出版社, 2010.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Chaoye qunzai

Song huiyao jigao

Song shi

Su Shi, *Su dongpo quanji*

Tongmun sŏn

Yi Kyubo, *Tongguk i sangguk hujip*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ŏng, Kyuhong (Jung, Gyu-hong). *Uri munhwajae panch'ulsa*. Sŏul: Hakyŏn munhwasa, 2012.

Chŏng, Sinok (Chung, Shin-ock). "11-segi mal-12-segi chŏnban Koryŏ ch'ŏngja e poinŭn Chungguk toja ũi yŏngnyang[The Effects of Chinese Ceramic on Goryeo Celadon of the late 11th century and early 12th century]." *Misulsahak* 21 (2007): 41-85.

Chŏng, Ũnchŏng (Jeong, Eun-jeong). *Koryŏ Kaegyŏng, Kyŏnggi yŏn'gu*. Sŏul: Hyeon, 2018.

Chŏng, Yongpŏm (Jung, Yong-bum). "Koryŏ sidae sach'al ũi sangŏp hwaltong." *Yŏksa wa segye* 30 (2006): 531-552.

Chŏnnam munhwajae yŏn'guwŏn (Jeonnam Cultural Property Research Center). *Sinan Hŭksando kwansaji II*. Sunch'ŏn: Chŏnnam munhwajae yŏn'guwŏn, 2016.

Chungang munhwajae yŏn'guwŏn and Han'guk t'oji chut'aek kongsa (Korean Land & Housing Corporation). *Taejŏn Kaodong yujŏk*. Sŏul: Chungang munhwajae yŏn'guwŏn, 2003.

_____. *Ch'ŏngju Yullyang 2-chigu t'aekchi kaebal chigu-nae Ch'ŏngju Yullyangdong yujŏk II*. Sŏul: Chungang munhwajae yŏn'guwŏn, 2011.

Chungwŏn munhwajae yŏn'guwŏn. *Kanghwa Ongnim-ri yujŏk*. Ch'ŏngju: Chungwŏn munhwajae yŏn'guwŏn, 2012.

_____. *Kanghwa Sinbong-ri, Changjŏng-ri yujŏk*. Ch'ŏngju: Chungwŏn munhwajae yŏn'guwŏn, 2013.

Daisuke, Tokutome. "Koryŏ ũi Chungguk toja suyong." In *2022-nyŏn haeyang silk'ŭ rodŭ kukche haksul taehoe-Koryŏ sidae Han-Chung hangno wa haeyangsajŏk ũimi*, 35-172. Mokp'o: Kungnip haeyang munhwajae yŏn'guso, 2022.

Enomoto, Wataru. "Song Il, Wŏn Il kan haesang hangno wa Koryŏ tosŏ chiyŏk[Goryeo island area and Sea route between Song Dynasty and Japan, and Yuan Dynasty and Japan]." Translated by Chihyŏn I (Ji-hyun Lee). *Haeyang munhwajae* 9 (2016): 72-97.

- Hö, Hüngsik (Heo, Heung-sik). *Chinjöng kuksa wa Hosan nok*. Söul: Minjoksa, 1995.
- Hong, Kūmsu (Hong, Keum-soo). "Koryö sidae Hüngwönch'ang kwa Pöpch'ön, Kōdon, Hüngböp Wönju 3-dae kangbyön sach'al." *Taehan chiri hak'oeji* 54, no. 6 (2019): 577-608.
- I, Chinha (Lee, Jin-han). *Koryö sidae Song-sang wangnae yön'gu*. Söul: Kyöngin munhwasa, 2011.
- I, Chongmin (Lee, Jong-min). "Koryö chunggi suip Chungguk paekcha üi kyet'ong kwa sönggyök." *Misulsa yön'gu* 25 (December 2011): 137-160.
- I, Hüikwan (Lee, Hee-gwan). "Koryö Yejong kwa Puksong Hwijong-12-segi ch'ogi üi Koryö ch'öngja wa Yöyo mit Puksong kwanyo[Emperors Yejong of Goryeo and Huizong of the Northern Song: Goryeo Celadon in the Early Twelfth Century, Ru Wares and Northern Song Official Wares]." *Haeyang munhwajae* 8 (2015): 155-233.
- I, Myöngok (Lee, Myoung-ok). "T'aeon Mado 2-chigu haejö ch'ult'o Chungguk toja yön'gu."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2013.
- I, Pyönghüi (Lee, Byung-hee). "Koryö mal Chosön ch'o paekyangsa üi chungch'ang kwa kyöngje munje[Reestablishment and Economy of the Buddhist Temple Baegyangsa between the late Koryo Dynasty and the early Chosun Dynasty]." *Han'guksa yön'guhoe* 99 and 100 (1997): 195-223.
- _____. *Koryö sigi sawön kyöngje yön'gu*. Söul: Kyöngin munhwasa, 2009.
- Im, China (Im, Jin-a). "Koryö ch'öngja e poinün Puksong, yodae chagi üi yöngnyang."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2005.
- Kang, Pongryong (Kang, Bong-ryong). "Kodae Han-Chung hangno wa Hüksando." *Tongasia kodaehak* 20 (2009): 1-38.
- Kim, Kyöngin (Kim, Gyeong-in). "Koryö sidae yuip Songdae nambang paekcha yön'gu."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22.
- Kim, Yunchöng (Kim, Yun-jeong). "Chagang-do Hüich'ön-si Sömundong kyojang ch'ult'o yumul üi sönggyök kwa p'yönnö." *Toja munhwa* 2 (2009): 7-35.
- _____. "Koryö sidae yujök ch'ult'o Songdae ch'öngbaekcha üi hyönhwang kwa t'ükching." *Yae kogohak* 16 (March 2013): 91-119.
- _____. "Kündae Miguk üi Koryö ch'öngja Collection hyöngsöng kwa yön'gu sönggwa üi üimi[The Formation and Research Achievements of Goryeo Celadon Collections in Modern America]." *Söktang nonch'ong* 66 (2016): 387-429.
- _____. "12-segi Koryö ch'öngja iryongmun üi tosang chök t'ükching kwa yönwön[The Origin and Iconography of the Chilong Design Found on 12th Century Goryeo Celadon]." *Misulshak* 35 (February 2018): 7-38.
- _____. "Koryö sidae Songdae ch'öngbaekcha üi yuip hyönhwang kwa kü üimi." In *Paekcha: Kyöngdöckchin esö Söul kkaji*, 220-239. Söul: Hansöng paekche pangmulgwan, 2020.
- Ko, Ŭnmi (Go, Eun-mi). "12-segi üi yöil kyoryu wa songsang[Traffic between Goryeo and Japan in the 12th Century in View of Role of Chinese Merchants]." *Sarim* 49 (2014): 313-335.

- Ku, Sanu (Koo, San-woo). "Koryŏ Hyŏnjongdae ūi tae Kŏran chŏnjaeng kwa kŭ chŏngch'i, oegyŏ chŏk sŏnggyŏk." *Yŏksa wa kyŏnggye* 74 (2010): 85-127.
- Kungnip Cheju pangmulgwan (Jeju National Museum). *Cheju ch'ult'o Koryŏ sidae tojagi*. Cheju: Kungnip Cheju pangmulgwan, 2013.
- Kungnip haeyang munhwajae yŏn'gus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Heritage) and Munhwajaech'ŏng (Korea Heritage Service). *T'aean Mado ch'ulsu Chungguk tojagi*. Mokp'o: Kungnip haeyang munhwajae yŏn'guso, 2013.
- Kungnip haeyang yusan yŏn'gus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Heritage). *Cheju Sinch'ang-ri haeyŏk sujung palgul chosa pogosŏ II*. Mokp'o: Kungnip haeyang yusan yŏn'guso, 2024.
- Kungnip Iksan pangmulgwan (Iksan National Museum). *Mirŭksaji toja: Chungguk toja*. Iksan: Kungnip Iksan pangmulgwan, 2023.
- Kungnip Kanghwa munhwajae yŏn'guso and Inch'ŏn sirip pangmulgwan. *Kangdo, Koryŏ wangnŭng chŏn*. Kanghwa: Kungnip Kanghwa munhwajae yŏn'guso, 2018.
- Kungnip munhwajae yŏn'gus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aesŏng Koryŏ kungsŏng*. Taejŏn: Kungnip munhwajae yŏn'guso, 2009.
- _____. *Kaesŏng Koryŏ kungsŏng nambuk kongdong palgulchosa pogosŏ II*. Taejŏn: Kungnip munhwajae yŏn'guso, 2015.
- Kwŏn, Sohyŏn (Kwon, So-hyun). "Mirŭksaji ch'ult'o Chungguk toja ūi hyŏnhwang kwa t'ŭkching." In *Mirŭksaji Chungguk toja, 2024 Kungnip Iksan pangmulgwan haksul taehoe*, 38-67. Iksan: Kungnip Iksan pangmulgwan, 2024.
- Li, Jianan. "Han'guk T'aean Mado sujung esŏ inyang toen pokkŏn toja mit kwallyŏn munje." In *T'aean Mado ch'ulsu Chungguk tojagi*, 196-209. Mokp'o: Kungnip haeyang munhwajae yŏn'guso and Munhwajaech'ŏng, 2013.
- Mun, Kyŏnggho (Mun, Gyung-ho). "Song, Wŏndae Koryŏ ūi haesang muyŏngno wa ch'ŏngja kyoyŏk." In *P'urun sesang ūl pitta, Koryŏ sanghyŏng ch'ŏngja t'ŭkpyŏlchŏn yŏn'gye haksul simp'ojiŏm*, 33-53. Sŏul: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and Han'guk misulsa hakhoe, 2025.
- Pak, Yongun (Park, Yong-woon). "Koryŏ sidae Chŏngan Im-ssi, Ch'ŏrwŏn Ch'oe-ssi, Kongam Hŏ-ssi kamun punsŏk." In *Koryŏ sahoe wa munbŏl kwijok kamun*, 223-270. Sŏul: Kyŏngin munhwasa, 2003.
- Pang, Pyŏngsŏn (Bang, Byung-sun). "Songdae Kwangdongsŏng Chojuyo ūi muyŏk toja koch'al[A Study on the trade ceramics of Guangdong Chaozhou Kiln during the Song Dynasty]." *Kangjwa misulsa* 63 (December 2024): 327-355.
- Song, Tongrim (Song, Dong-lim). "Hanbando kŭnhae ch'ulsu Song Wŏn toja ūi yangsang kwa ch'oejong suyoch'ŏ[A Study of China porcelain Excavated from underwater near offshore Korean peninsula in the Song and Yuan Dynasties]." *Munmul yŏn'gu* 29 (2016): 45-66.
- Tanaka, Katsuko. "Han'guk ūi T'aean Mado haeyŏk esŏ ch'ult'o toen Chungguk tojagi ro pon tongasia

haeyŏk.” In *T'aean Mado ch'ulsu Chungguk tojagi*, 238-263. Mokp'o: Kungnip haeyang munhwajae yŏn'guso and Munhwajaech'ŏng, 2013.

3. Secondary Source in East Asian

Chen, Jie. “Cong nanfang ciqi chutu kan Song Yuan shiqi Shandong shuilu jiaotong.” *Shandong shehui kexue* 5 (May 2004): 97-102.

Chōsen kōgei kenkyūkai. *Chōsen kōgei tenrankai zuroku*. Tōkyō: Bunmei shōten, 1941.

Guojia wenwuju shuixia wenhua yichan baohu zhongxin, Zhongguo guojia bowuguan, Guangdong sheng wenwu kaogu yanjiusuo, and Yangjiang shi bowuguan. *Nanhai I hao chenchuan kaogu baogao zhi yi 1989-2004 nian diaocha*. Beijing: Wenwu chubanshe, 2017.

_____. *Nanhai I hao chenchuan kaogu baogao zhi er 2014-2015 nian diaocha*. Beijing: Wenwu chubanshe, 2018.

Hasebe, Rakuji, and Atsushi Imai. *Chūgoku no tōji-Nihon shutsudo no Chūgoku tōji*. Tōkyō: Heibonsha, 1995.

Hebei sheng wenwu guanlichu. “Hebei Xuanhua Liao bihua mu fajue jianbao.” *Wenwu* 8 (August 1975): 31-39, 95-101.

_____. “Hebei Yixian jingjiaosi shelita digong qingli ji.” *Wenwu* 9 (September 1986): 76-80.

Huang, Yijun. *Songdai qingbaici de lishi dili yanjiu*. Beijing: Wenwu chubanshe, 2010.

Jiangxi sheng bowuguan. *Jiangxi Songdai jinian mu yu jinian qingbaici*. Beijing: Wenwu chubanshe, 2016.

Jin, Yingmei. “Hanguo guoli zhongyang bowuguan zang Gaoli yizhi chutu Zhongguo ciqi.” *Wenwu* 4 (April 2010): 77-95.

Jōrakuji bijutsukan. *Keizuka shutsudo no meihō*. Nagano: Jōrakuji bijutsukan, 1982.

Kakei, Meitoku. “Ryō setsuro shihaku shikō byō no tōji.” *Kyūshū rekishi shiryōkan kenkyū ronshū* 2 (January 1976): 98-103.

Keijō bunmei shōkai. *Chōsen kōgei tenrankai zuroku (Fukkōkuban) vol. 3*. Tōkyō: Tōyō keizai nippōsha, 1984.

Kyōto kokuritsu hakubutsukan. *(Kyōto kokuritsu hakubutsukan zō) Keizuka ihō*. Kyōto: Kyōto kokuritsu hakubutsukan, 1986.

Li, Jianan. “Chūgoku no hakuji, seiji, seihakuji no bunrui gainen.” *13-14 seiki no Ryūkyū to Fukken* (March 2009): 12-14.

Li, Yingchong. “Nanfang baici yu ‘qingbaici’ chanpin dingming de zaitantao.” *Zhongyuan wenwu* 216 (December 2020): 118-128.

Liu, Wei. “Zhongguo dongnan yanhai ji dongnanya diqu chenchuan suo jian Song Yuan maoyi taoci.” *Kaogu yu wenwu* 6 (December 2016): 65-75.

Miyake, Chōsaku. “Sono koro no omoi de Kōrai kofun hakkutsu jidai.” *Tōji* 6, no. 6 (1934): 70-77.

- Morimoto, Asako. "Nihon no hakuji, seiji, seihakuji no bunrui gainen-bōeki tōji bunrui no rekishi o kaerimiru," *13-14 seiki no Ryūkyū to Fukken* (March 2009): 15-20.
- Nara kokuritsu hakubutsukan. (*Shinkan rakusei kinen*) *Kyōzuka ihō ten*. Nara: Nara kokuritsu hakubutsukan, 1973.
- _____. (*Kyōzuka shutsubo tōji ten*) *Kinai ni mainō sareta yakimono*. Nara: Nara kokuritsu hakubutsukan, 1995.
- Okudaira, Takehiko. "Chōsen shutsudo no Shina tōjiki zatsuken," *Tōji* 9, no. 2 (1938): 1-7.
- Song, Donglin. "Jingdezhen yao Wudai Song Yuan shiqi mi bai you ciqi yanjiu." PhD diss., Beijing University, 2014.
- Sugasawa, Sowaka. "Kyōzuka ni mainō sareta seihakuji kozutsu ni suite-Chūgoku kinenbo shutsudohin to no hikaku ni yoru hensan to mainō haikai no kentō-," *Tōyō tōji* 51 (March 2022): 5-33.
- Tokutome, Daisuke. "Nihon ni shutsudo, densei suru seihakuji meiping ni kansuru ichi kōsatsu." *Idemitsu Bijutsukan kenkyū kiyō* 214 (January 2018): 17-53.
- Tōkyō kokuritsu hakubutsukan. *Nihon shutsudo no Chūgoku tōji*. Tōkyō: Tōkyō kokuritsu hakubutsukan, 1975.
- Wang, Shanjun. "You fu qiu gui: cong Guihua zhou Zhang shi kan Liao Jin Yanyun haozu de fazhan lujing." *Hebei daxue xuebao (zhexue shehuikexue ban)* 6 (December 2009): 1-8.
- Yin, Enzhu. "Song Jin shiqi Dongya chutu de Zhongguo baici yanjiu." Master's thesis, Fudan University, 2016.
- Zayūhō kankōkai, ed. *Sekai tōji zenshū 18 Kōrai*. Tōkyō: Shōgakukan, 1978.
- Zhang, Yun. "Shanxi Lantian Beisong Lu shi jiazumu yuan kaogu fajue zongshu yu yanjiu." In *Yishi tongdiao - Shanxi Lantian Lu shi jiazumu chutu wenwu*, 4-11. Beijing: Zhonghua shuju, 2013.
- Zhangjiakou shi wenguansuo Xuanhua xian wenguansuo. "Hebei Xuanhua Liao Jiang Chengyi mu." *Beifang wenwu* 4 (December 1991): 67-71, 173-174.
- Zhongguo guojia bowuguan, Suining shi bowuguan, and Pengzhou shi bowuguan. *Song yun-Sichuan jiaozang wenwu jicui*. Beijing: Zhongguo shehui kexue chubanshe, 2006.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려시대(918~1392) 송대(960~1279) 남방 백자의 유입과 소비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고려 유적에서 출토되었거나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전세된 총 884점의 백자로, 중국 강서성·복건성·광둥성에서 생산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요장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남방 백자의 품질, 기형, 시문 방식, 문양의 차이를 고려하여 강서성과 복건성·광둥성으로 구분하였다.

송대 남방 백자의 출토 양상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특징이 확인되었다. 첫째, 개성 일대와 지방 일대에서 소비된 백자의 기종과 품질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지방에서는 사찰을 중심으로 백자가 소비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려 사찰과 宋商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제주도나 흑산도와 같은 해상 교역로 상의 중간 기착지에서는 내륙과 다른 소비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12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남방 백자의 유입 양상이 두 시기로 구분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각 시기는 백자의 기종 및 품질 변화, 요·일본 출토품과의 비교, 유입 경로, 고려자기에 미친 영향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적 특징과 시기적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고려 사회에서 남방 백자가 당시 선호와 수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소비된 물질문화의 일환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Reception Patterns of White Wares from the Southern Region of the Song Dynasty Excavated from Koryŏ Sites

Kim, Gyeong-i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ansmission and consumption of white wares from the southern region of the Song Dynasty (960-1279) within Koryŏ-period (918-1392) contexts, focusing on 884 excavated specimens from archaeological sites across Korea as well as pieces housed in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se wares, produced in Jiangxi, Fujian, and Guangdong provinces, are classified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with Chinese kiln site materials, taking into account distinctions in quality, form, decorative technique, and motif. On this basis, the porcelain is grouped into two regional traditions: Jiangxi, and Fujian-Guangdong.

The analysis reveals three significant aspects of the distribution of white wares from the southern region of the Song Dynasty in Koryŏ. First, variations in vessel type and quality are evident between the Kaesŏng region and peripheral areas, suggesting differentiated patterns of elite and regional consumption. Second, in provincial sites, Buddhist temples functioned as primary loci of porcelain usage, indicating a close nexus between Koryŏ monastic institutions and Song commercial networks. Third, distinctive modes of consumption emerged at maritime waystations such as Jeju Island and Hŭksando, diverging from inland patterns. Notably, the inflow of white wares from the southern region of the Song Dynasty can be divided into two distinct phases around the mid-12th century, each characterized by shifts in vessel typology, material quality, comparative relationships with Liao and Japanese imports, trade routes, and the subsequent influence on Koryŏ celadon. By tracing these spatial and chronological dynamics, this study situates white wares from the southern region of the Song Dynasty as an actively selected material object in Koryŏ society—one whose circulation and reception were closely aligned with contemporary tastes, institutional networks, and the broader cultural logic of consumption.

* Ph.D. Student, Division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Korea University